

# “누가복음 8장 1절~15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15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236장(새찬송가 205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곧 복음의 진수(眞髓)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예들려 말하자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선택된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전도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섬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통해 악령에게서 놓임 받고, 병 고침 받은 여인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인(원어로 막달레네)라고 하는 마리아는 일곱 악령들의 지배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악령을 축출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 디베랴 북쪽 약 4.8킬로미터에 ‘막달라’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막달레네는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훈과 능력으로 고침 받은 그 은혜를 한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현장에도, 시신이 장사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보았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헤롯왕의 청지기였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직책은 행정장관 정도의 높은 관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 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너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니 도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수 소문하여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법은 어떤 사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유법을 자세하게 분류하면 매우 다양합니다. 비유법 중에는 동식물을 의인화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우화도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의 성경원어(파라볼레)는 ‘결’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던지다’는 뜻을 가진 ‘발로’의 합성어입니다. 이처럼 비유란 ‘결에 던지다’는 뜻으로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교육방법입니다.

비유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비유는 단순성이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간단한 이야기로 나타내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소재는 대체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이나 풍습 등에서 취합니다. 비유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듣는 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30개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회적이고, 상징적 표현으로서 한편으로는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밝히 보이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의도를 감추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원인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비유이지만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썩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백 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연설명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비밀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다.” 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 그 자체는 농부분 아니라 농사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다 아는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인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신령하고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하는데 열쇠(key word)가 되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떨어지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상태의 토양이 있음과 아울러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마음상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첫째는, ‘길가’같은 마음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란 밭일을 위해 사람들이 왕래하도록 밭에 붙은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왕래로 다져진 딱딱한 땅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① 자만과 교만이 그 이유입니다. 자만과 교만은 마음을 완고하고 강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 일개 농사꾼으로 있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행세(行世)하였습니다. 그리하므로 점차 마음이 강박하게 굳어져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목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② 감사가 없고 불만과 원망을 상습적으로 하면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굳어집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원망 불평이 도가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역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③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이 그 이유입니다.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된 초창기에는 사도들조차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결과 부정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식사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등의 오해와 편견이 그러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읍바에 있는 피혁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음성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곧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여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념과 편견을 떨쳐버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④ 냉담한 태도가 그 이유입니다. 냉담은 마음을 굳어진 상태가 되게 합니다. 보면서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관심이 없으면 길가 같은 마음상태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다.”고 하였으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새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제거해 버리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찌하던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천국복음을 제거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 상태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쟁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 따르는 고통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해서라도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는, ‘바위’같은 마음상태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기를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이해가 빠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에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악령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단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외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목하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으므로 악령들이 예수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여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 온 돼지 떼가 비탈길을 따라 바다 속으로 내리달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 곧 악령 들렸던 자들의 일을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악령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돼지 떼가 몰사한 재산상의 피해를 생각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호감이 순식간에 비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흙이 깊지 아니한 바위 위의 토양과 같은 마음입니다.

깊이가 없는 성향의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그리고 기발한 설교나 예배순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힘들어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 상고하는 것에는 곧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열정적인 모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지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그 열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는 오래가지 못해 시들어지고 맙니다. 본문에는 “바위 위에 있

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민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막 4:16,17)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겪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몰이해, 박대, 소외, 부당한 대우, 손실 등을 당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속으로 이끄는 유혹에 빠지는 자 혹은 종교 혼합, 종교 일치, 종교 다원주의, 공산주의를 변호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위 위에 얇게 덮인 흙 같아서 올바른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위 위에 얇게 덮인 토양 같은 마음에 말씀이 임하여 생겨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흙이 깊지 못하므로 얼마가지 않아 시들어집니다.

**셋째는, ‘가시덤불’같은 마음상태가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진 씨는 흙이 넉넉하므로 뿌리를 잘 내리지만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덤불을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육신의 향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은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면 영생과 주의 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록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을도다”(딤후 6:9,10) 하였습니다.

부자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3,24) 하였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대답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므로 재물 우선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잘 섬기려는 것이면 그 재물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락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을 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나태하도록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좋은 오락이나 취미 활동이라도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면 가시덤불입니다. 세상 쾌락이 믿음을 소멸시키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 재물, 세상 즐거움이 가시덤불 같은 기세로 덮쳐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 9:27) 하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썩도 트지 못하고 새에게 먹혔고, 바위 위의 흙에 떨어진 씨앗은 겨우 뿌리를 내렸으나 얼마 가지 못해 타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자라지만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설교자와 전도자에게 길 가와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보람을 주지 못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약간의 기쁨을 주는 데서 그치게 합니다. 가시덤불 밭과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한 동안 보람과 기쁨을 주지만 결국 마음 아프게 하고 맙니다.

**넷째는, ‘좋은 땅’같은 마음상태가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알고, 존중히 여기며,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행합니다. 그리하여 예배, 기도, 전도와 모이기를 힘씁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대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 밭에 심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는 말씀이 성경에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을 인내하였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났고 노아의 식구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영생과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은 영생과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심은 복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복음 전도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는 천국복음은 네 종류의 마음상태에 뿌려집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현재는 좋은 땅이 아니라도 어느 날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마음의 성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 밭에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① 자만과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② 주님을 향한 불신의 말,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③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편견과 선입관념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④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⑤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말씀에 합당한 생각과 말을 지속해야 합니다. ⑥ 세상일로 인한 지나친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신앙 발전을 가로막는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신령한 일로 인한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⑦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 마음은 밭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말씀의 씨앗을 풍성하게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